



WWF

KOREA



2021 ANNUAL REPORT

연간보고서 2021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500만 명의 후원자와 3,000만 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인식 개선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21
발행인: 홍윤희
발행처: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2021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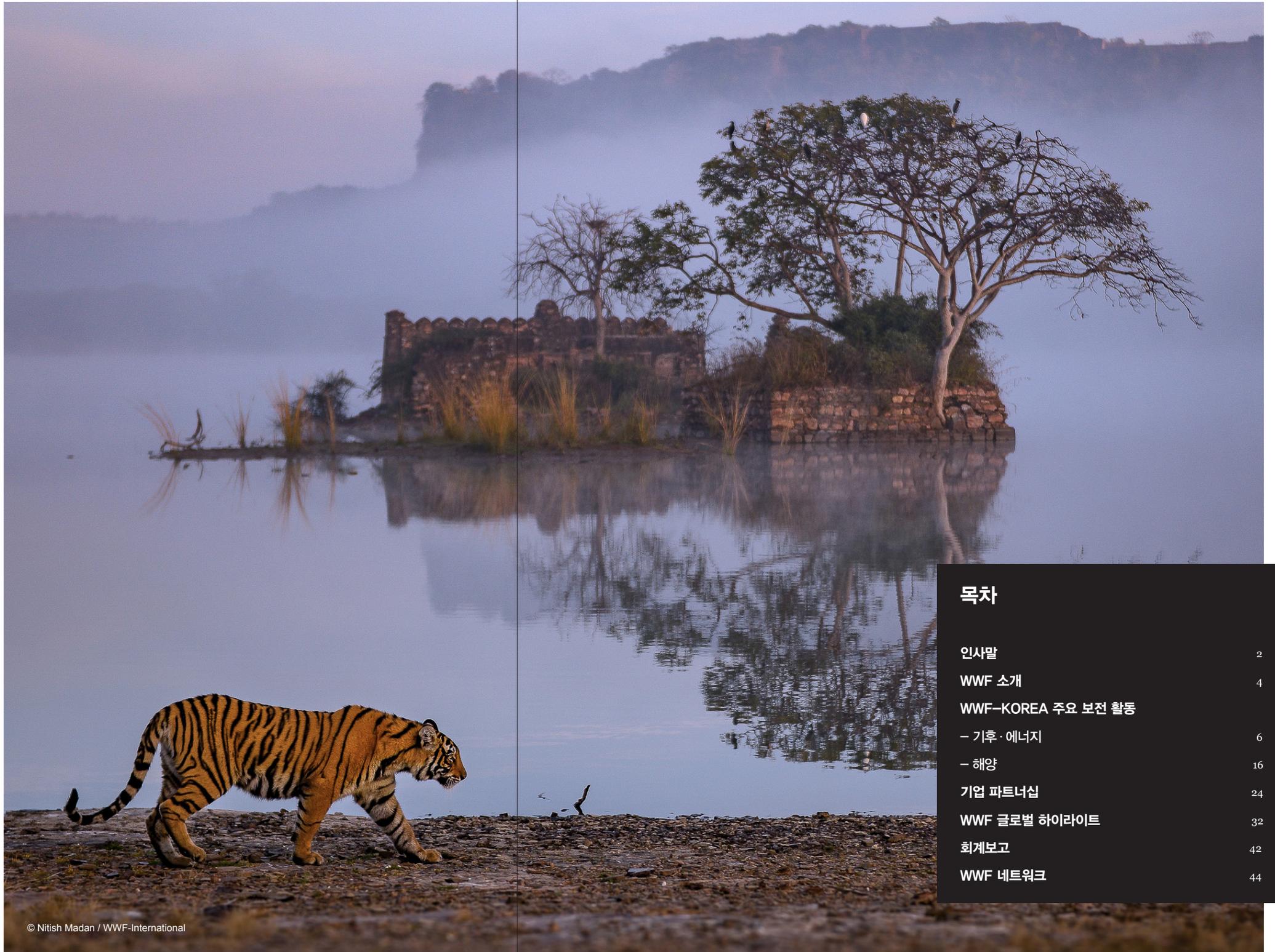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Suyash Keshari /
WWF-International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Korea 연간보고서 2021
© Text and graphics 2021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보고서는 산림관리협의회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 받은 종이로 인쇄되었습니다.



© Nitish Madan / WWF-International

목차

인사말	2
WWF 소개	4
WWF-KOREA 주요 보전 활동	
– 기후·에너지	6
– 해양	16
기업 파트너십	24
WWF 글로벌 하이라이트	32
회계보고	42
WWF 네트워크	44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가능한 미래



WWF-Korea
이사장
손성환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의 오랜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학자 Nathan Wolfe는 2011년 저서를 통해 야생동물에 잠복한 병원균이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과 도축으로 다른 종으로 이동할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 피해가 증폭되고, 그 중심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커다란 위기와 도전이 기후변화라는 점입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의 합의와 2018년 송도에서 개최한 IPCC 총회에서 재확인된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0% 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배출 순제로인 탄소중립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각국이 2015년 이미 제출한 2030년 까지의 감축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UNEP가 발표한 2021 Emission Gap 보고서는 각국이 강화된 감축목표를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이 2.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협력과 연대, 각국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사회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기후 행동을 취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WWF는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 정부의 탈석탄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생산의 주체인 국내 기업들이 SBT(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한편,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활용(Nature-Based Solutions)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들도 실시해 왔습니다.

2021년은 국제 사회가 파리협정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WWF에 보내주신 후원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보다 밝고 건 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WWF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자연이 회복되는 세상



WWF-Korea
사무총장
홍은희

1961년 설립된 WWF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WWF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500만명의 후원자, 3000만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보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WWF-Korea는 상대적으로 늦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활동 분야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WWF는 올 한 해도 자연보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13번째 지구생명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군의 2/3가 감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생물다양성 감소의 문제 분석을 넘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육상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삼림 벌채 및 토지 개발과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WWF는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랑이 개체 수를 두배로 늘리기 위한 TX2 캠페인은 호랑이의 번식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위해서도 보전이 필요한 자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전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캠페인 시작 전 3,200마리였던 야생 호랑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멸종이 우려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량과 속도는 지구상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해지게 만들어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방식과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탄소발자국을 급격히 줄여야 합니다. WWF-Korea는 국내 기업이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5도에 맞추어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기후의 위기는 또한 자연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WWF-Korea는 바다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해양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양어선에 전자조업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조업활동에서 수산물 유통까지의 과정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을 높이고자 시도했습니다.

시장 변화와 소비자 인식제고에도 앞장섰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고질적인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자간 협의회를 만들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WWF의 지난 60년은 사람과 자연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를 넘어 자연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함께 할 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소개

WWF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WWF의 미션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전기관 WWF(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본부 는 스위스 글랑에 위치해 있습니다. WWF의 초창기 명칭은 '세계 야생동물 기금(World Wildlife Fund)'이었으나, 해당 명칭이 기관의 활동 범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1986년 '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명칭 변경 후 1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지며 혼란이 생기자, 꾸준히 사용되어온 약자 WWF로 국제 명칭을 통일하기로 2001년 결정했습니다.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지난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본부는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해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를 진행하고, 기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 제언, 소비자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 생산 방식의 전환 등의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WWF의 미션은 지구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활동에 힘쓰고자 합니다.

1.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
2.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3.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인식제고 활동에 힘쓴다.

WWF의 목표

WWF는 인간과 지구가 모두 번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 세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가지 목표는 1) 자연서식지의 보전 2) 생물종 멸종 방지 3) 생산과 소비의 생태발자국 감소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인간과 지구를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시키고,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지구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WWF의 핵심 가치

WWF는 직원 채용, 프로젝트, 캠페인 등 활동 전반에 4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용기, 정직, 존중, 협업의 가치입니다. WWF는 자연은 물론 동료, 파트너, 지역

사회 그리고 후원자 등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와 핵심 가치를 통해 One WWF(하나의 WWF)가 되고자 합니다.

용기 (Courage)

WWF는 행동을 통해 용기를 발휘하고, 보다 나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며,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터전인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정직 (Integrity)

WWF는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진실성, 책임감, 투명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실과 과학을 토대 삼아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존중 (Respect)

WWF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지식을 존중하며,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 (Collaboration)

WWF는 공동 대응과 혁신의 힘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비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WWF-KOREA 주요 보전 활동: 기후·에너지



1.5도 이상
더 뜨거워진 지구를
이제는 생각할 수 없다

1. 활동 배경과 목표

최근 전 세계 각지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사례들과 코로나19와 같은 생물학적 재해를 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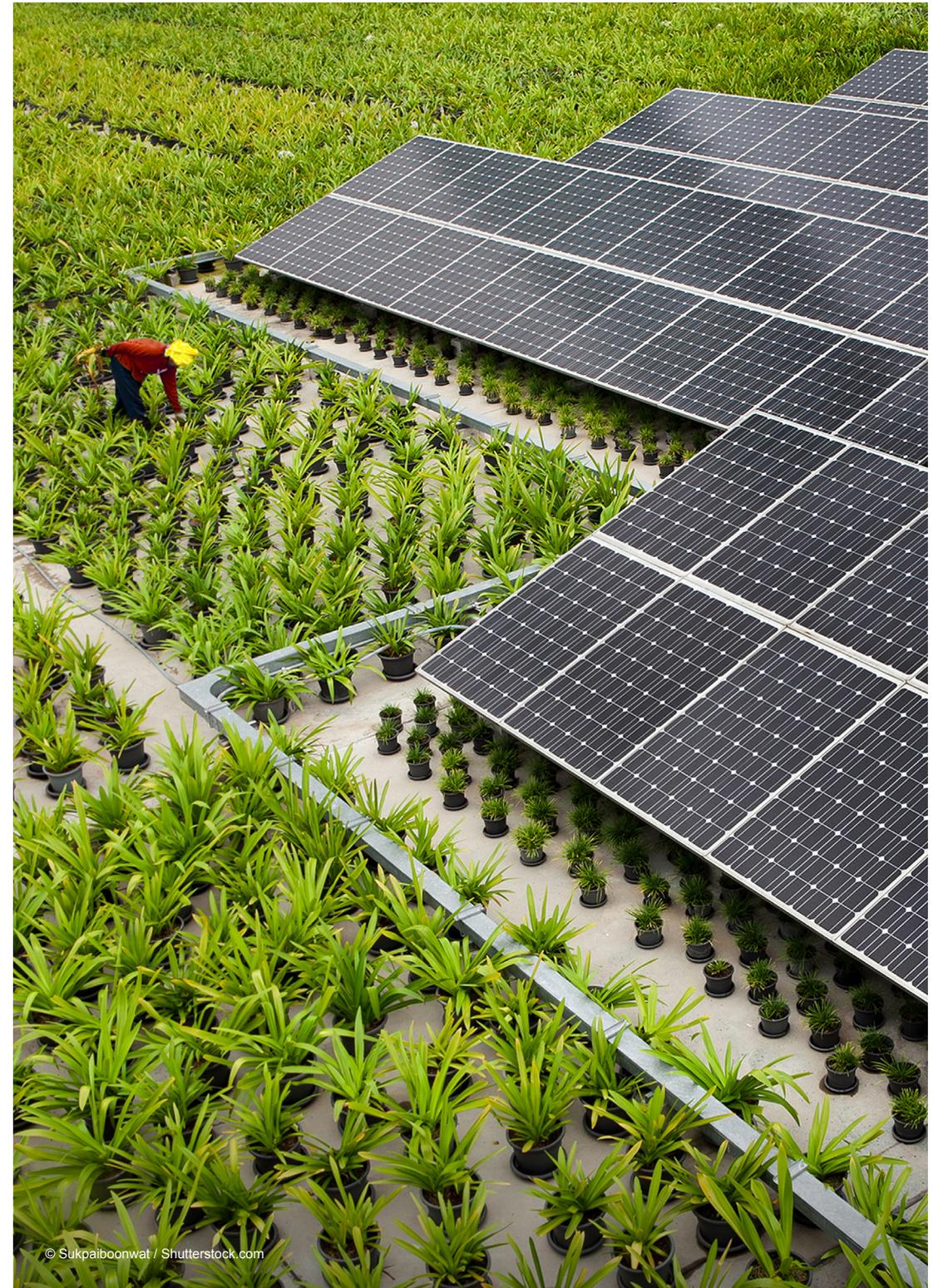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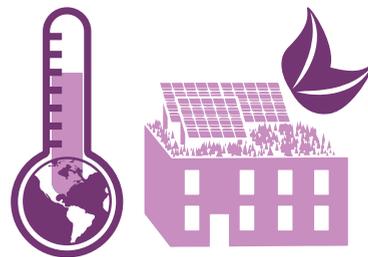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가량 감축해야 한다. 매해 UNFCCC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모든 참여 국가들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목표를 강화하고 더 명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2050 넷제로(Net-Zero) 선언, 2021 P4G 정상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도 넷제로 및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표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사회의 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각 부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후, 자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할 목표로 수립하고, 각 부문에서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포함된 G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76%를 차지한다고 한다. WWF는 1.5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SBTi(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와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을 지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WWF-Korea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 기후·에너지 관련 이니셔티브 제공 및 참여 유도
-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제공
-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전략 개발 지원



© Sukpaibonwat / Shutterstock.com

2. 추진 활동 및 성과

1) 가이드 소개 및 모범 사례 공유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SBTi는 파리협정 목표와 최신 기후 과학에 맞추어 기업이 과학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WWF와 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연연구소(WRI)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어 목표를 세우는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BTi 참여 방법은 크게 ΔSBTi를 수립하겠다고 약속 및 선언하는 1단계와 Δ실제 SBT 목표 수립 후 이니셔티브의 검증을 받

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1,400개 이상의 기업이 SBTi 참여 선언을 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700여 개의 기업이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500개 이상의 기업이 1.5도에 맞추어 목표 수립을 약속하거나 실제 수립을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6개 기업만이 참여 선언을 한 상태로 한국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WWF는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SBTi 목표 수립 방법과 모범 사례를 기업에 소개하고 있다.

기후행동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간

WWF-Korea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우수 기업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 10개 산업 부문과 해외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는 10개 업종에 대해 국내외 기업별 기후행동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우수 기업의 사례 소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통해 10개 산업부문에서 국내 기업 39개, 해외 기업 20개를 선정하여 '목표 및 성과'와 '정보 공개' 관점의 기후행동 현황을 분석했다. 선진 사례 소개를 통해 국내 기업에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우수 기업만 선정했다. 국내 기업은 특히 '장기 비전', '에너지 효율 목표', '재생에너지 목표' 부분에서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받아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기후·에너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WWF-Korea의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기업 비교를 통해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선도 기업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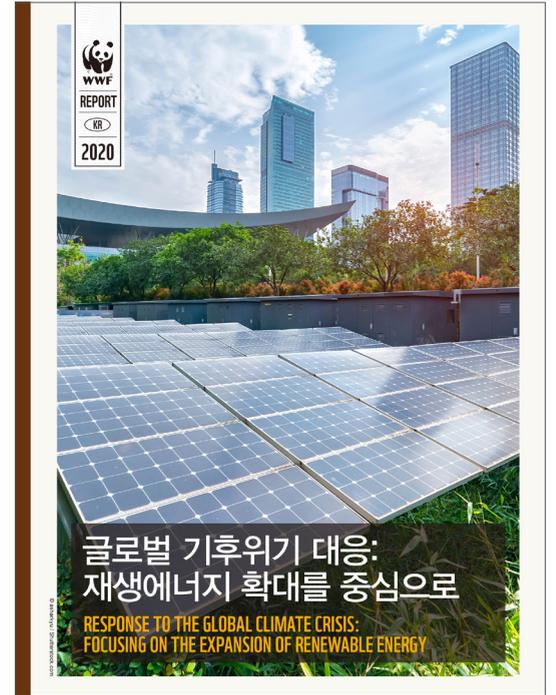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언하기 위한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중심으로 소개하고, 국내 기업에 필요한 제언을 담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RE100 이행 지원방안 발표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인식 전환의 과정과 그에 따른 실질적 변화들을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아울러 비국가행위자들이 경계가 없는 전방위적 협력체제로 기후 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일반 기업,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기관, 그 외 경제, 과학, 교육 및 종교계 등의 사례를 통해 이를 보여준다.



아시아 banking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

한국 5개 상업은행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48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분석한 2020년 SUSBA(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banking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경영 및 금융 활동을 할 때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은행의 전략과 의사 결정 절차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른바 'ESG 통합'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했다. WWF는 아시아 각국 은행들의 ESG 통합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은행들이 더욱 지속가능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네 번째로 시행된 SUSBA 평가에는 기존 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의 38개

은행과 함께, 한국의 5개 은행과 일본의 5개 은행이 처음 평가 대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SUSBA에 참여한 우리나라 은행은 국내 자산 규모 최대의 상업은행인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총 5곳이다.

WWF는 SUSBA를 통해 은행들의 목적(Purpose), 정책(Policy), 절차(Process), 임직원(People), 금융상품(Product),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6개 부문에서 ESG 요소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에너지, 팜오일 등 부문별 여신정책에 관한 세부 분석 결과도 함께 다뤘다. 한국의 은행들이 동남아시아 내 기업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 평가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2) 공동 행동을 위한 플랫폼 제공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후·에너지 관련 이슈와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2021년 4월에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연설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FCCC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알록 샤마(Alok Sharma)가 맡았고,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Race To Zero(파리협정 1.5도 목표와 현 기후행동 노력 간의 격차를 좁

히는 캠페인)를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자연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SBT 수립을 비롯한 기업의 기후행동 이행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업의 구체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ESG 동향과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를 비롯하여 WWF-Korea, CDP, UNGC가 참여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독려했다.



국내외 기업의 기후행동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WWF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Climate Business Network(CBN) Asian Virtual Summit'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여 지속가능성 달성 과정에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WWF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했다. 과학기반목표인 SBT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조달 관련 정보, 아시아 각국과 기업의 사례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일단 시작하면 결과물은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제공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니셔티브 등의 형태를 통해 함께 힘을 합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CoREi 활동

CoREi(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는 2020년 6월 발족한 이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회원사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5번의 활동은 매회 시의적절한 어젠다를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산업부 등 관련 기관 담당자를 초빙하여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했고, 2차 모임에서는 'RE100 지원 이행 방안' 발표 관련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하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워크숍에서는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보

고' 고시 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 업체를 초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네 번째 모임에서는 COP26 의장인 알록 샤마(Alok Sharma)를 초대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기업들에게 알리고 ESG 기후 전략 및 전기사업 관련 법안(PPA)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P4G 정상회의의 사이드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CoREi 워크숍 '탄소중립과 1.5도 목표를 향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 Zero Future)'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 및 주요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국내 지속가능금융 강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2020년 10월 개최한 '지속가능한 금융 워크숍: 기후 리스크와 TCFD'를 통해 기후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짚었고, 이어 BNP Paribas와 DBS가 각각 국제 은행의 관점을 공유하며 이행 과정의 도전 과제와 TCFD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 경험을 소개했다. Bloomberg LP에서는 TCFD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했고, UNEP-FI에서는 전환 리스크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 관련 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금융기관을 위해 마련된 SBT 방법론을 통한 목표 수립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국내 금융기관이 지속가능금융 정책을 강화하여 기후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 우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탈탄소 사회 실현에 앞장서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서명 동참하기

이름

이메일 @

휴대폰 번호

전체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WWF 뉴스레터 및 후원안내 수신 동의 (선택)
*뉴스레터를 통해 캠페인 진행 사항과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 촉구를 위한 청원 활동

파리협정을 통해 약 190여개 국가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1.5도는 인류 생존을 위한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살아갈 지구는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특히, 한국의 평균 기온 상승치는 전 세계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WWF-Korea는 기후행동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1.5°C에 부합하는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NDC(온실가스감축목표)를 1.5°C에 맞추어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SBT(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참여하여 기후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청원을 정부와 기업에 전달하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파리협정 1.5도 목표는
인류 생존을 위한
'한계선'이다.



© McDonald Mirabile / WWF-US

WWF-KOREA 주요 보전 활동: 해양



한계에 다다른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일

1. 활동 배경과 목표

바다는 약 100만 종의 생물이 사는 집이자, 8억 명 인구의 일자리이며, 33억 명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산물 생산 및 소비 방식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변화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어업은 해양 건강성과 이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WWF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모든 분야에서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IP(어업개선프로젝트)와 AIP(양식개선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이력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EM(전자조업모니터링, Electric Monitoring)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EM 사업을 통해 연근해뿐 아니라 공해상에서 올바른 조업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제언한다.

수산물 가공, 유통, 소매 기업들과는 파트너십을 맺어 지속가

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 비중을 늘리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생산자가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정부, 학계, 지역사회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WWF-Korea 해양보전팀은 아래 활동을 통해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및 연근해 어업 확대 지원
-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유도
-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확대



2. 추진 활동 및 성과

1)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확대



다랑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내 최초로 시민사회-원양업계-정부 다자간 협의의 장인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위한 라운드테이블(KORST: Korean Roundtable for Sustainable Tuna)'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WWF의 주최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원양 다랑어 생산량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원양선사인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유왕 등 기업들이 참석했다. 원양산업협회, 우리나라 다랑어의 주요 수입국 업체를 대표하여 영국 New England Seafood에서도 참여했다.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인증하는 MSC(해양관리협의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인증을

배출한 이래로 원양업계에서 MSC 인증에 대한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 제 3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MSC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중서부태평양(우리나라 전체 다랑어 원양 다랑어 생산량의 약 97%)의 어업관리와 주요 다랑어 어종(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의 자원 수준 및 어획노력량, 혼획 등을 점검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원양어업 관리 방안인 EM(전자조업모니터링, Electronic Monitoring)의 해외 적용 사례, 한국 원양어업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자조업모니터링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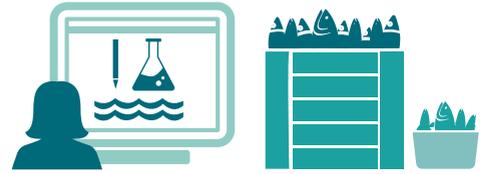
원양어업은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먼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와 감시가 쉽지 않다. 한 번 출항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육지에 정박하지 않고 조업을 하기 위해 '옵서버(Observer)'가 직접 어선에 승선하여 수개월간 어업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전자조업모니터링(EM, Electronic Monitoring)은 CCTV와 위성추적 시스템이 옵서버를 대신해 원양어업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자조업모니터링을 설치한 선박은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며, 육지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어업을 감독할 수 있다.

WWF-Korea는 2020년 10월부터 해양수산부, 사조산업과 함께 국내 최초로 전자조업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조업모니터링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올 1월 사조산업의 '제722 오룡호(다랑어 연승선)'에 장비를 설치하여 약 6개월간 어업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어업 영상 분석, 육상 옵서버 교육, 인공지능 분석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바다는 수온상승, 남획, 오염, 연안 개발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확대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블루오션 워크숍' 진행

WWF-Korea와 201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청산바다가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블루오션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산바다 전복 어가의 ASC 인증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준비됐다. 정부 및 지자체(해양수산부, 경

남 고성군, 전남 안도군), 대형마트(홈플러스, 올가홀푸드 등), 온라인 마켓(마켓컬리, SSG, CJ제일제당 등), 유통 기업(동원산업, 은하수산, 청산바다 등), 전복 생산 어가, 파트너사(파크 하얏트) 등에서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시장 변화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참여

WWF-Korea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내외 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협의회는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정식 출범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대책,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분야 민·관 협력 강화, 원양어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해양포유류 보호 등 해양 환경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상괘이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토대 마련

WWF가 멸종위기 토종돌고래 상괘이 보전을 촉구하기 위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 제출한 안건이 공식 채택됐다. 전 세계 170여 개국, 1400개 이상의 회원기관들이 참여하는 WCC는 IUCN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환경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황해 상괘이 보전 활동이 국제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상괘이 보전 안건 주요 내용으로는 상괘이가 주로 서식하는 황해 인접 국가(한국, 중국, 북한 등)들의 기초 조사 수행 및 위해 요소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이번 안건으로 상괘이 보전을 위해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 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상괘이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가장 작은 돌고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으로 급격한 개체 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해양 오염까지 더해 더욱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상괘이 보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IUCN의 상괘이 보전 안건 공식 채택 이후 상괘이 보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2020년 11월 개최됐다. WWF-Korea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황해 상괘이 보전 협력 및 향후 방안(Yellow Sea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Conservation Status & a Way Forward)'을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생중계됐다.

한국의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과, 어업정책과 등 상괘이 보전의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처에서 상괘이가 현재 처한 상황과 보전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과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한국의 상괘이에



© First Mates / WWF-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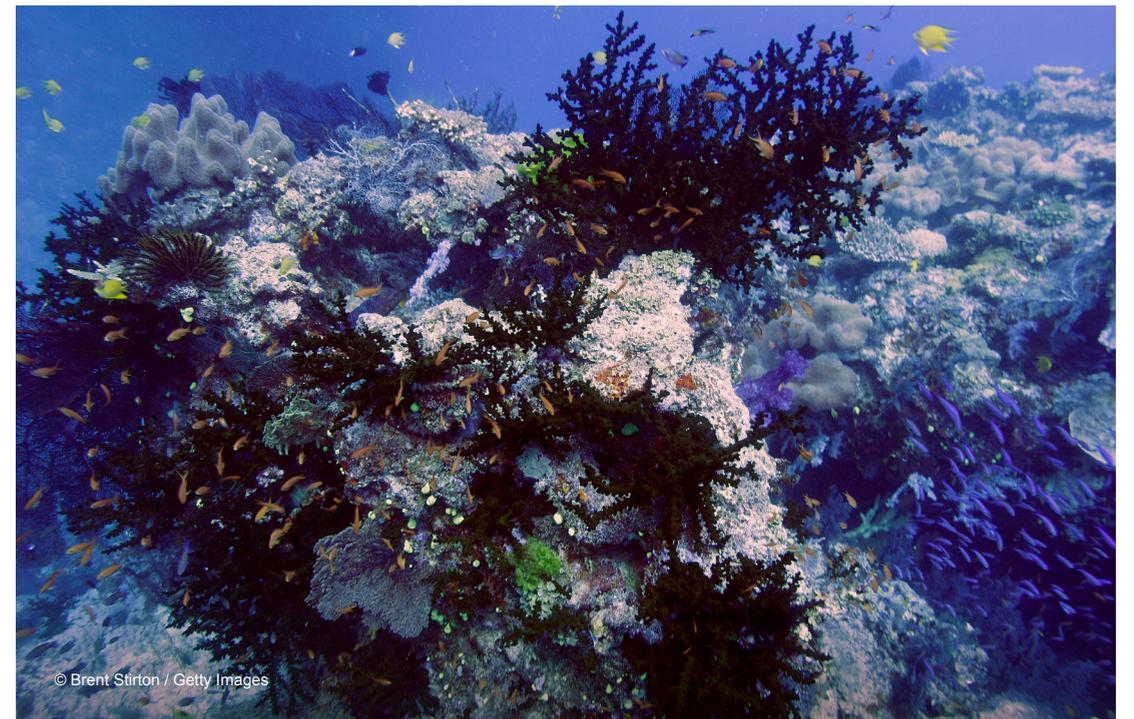
대한 그간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제 전문가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의 축사와 더불어 범국가적 혼획 저감 노력의 사례를 발표했고, 미국해양대기청(NOAA)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해양 동물의 근본적인 혼획을 없애기 위한 미국의 해양포유류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IUCN의 전문가 그룹, 영국의 소형 고래류 음향기 제작사, 중국의 상괘이 보전 현황 등이 공유됐고, WWF-Korea에서는 IUCN 채택안을 기반으로 황해국가들의 협력을 제안했다.



멸종위기종 상괘이의 이해를 돕는 보고서 발간

상괘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내 최초로 상괘이 전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기초적 생물학적, 생태학적 특성 및 전 세계 소형고래류의 동향, 한국의 고래연구센터의 과학적 조사 결과, 혼획 모니터링 결과 등이 담겼다. 또한, 혼획으로 인한 멸종위기 현황,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혼획 저감 노력, 보전 노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는 IUCN 정기 총회에 맞춰 회원기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발간됐다.



© Brent Stirton / Getty Images

WWF-KOREA 기업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향한
모두의 노력

1. 활동 배경과 목표

기업 혼자서는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변화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세계 경제의 주체로서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WWF는 기업과 함께 비즈니스로 인해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 지구의 자원과 자연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개별 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기업과 시장 전체가 지속가능하게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11개 기업과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플라스틱과 텍스타일 시장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 Alexander Vesolyov / WWF-Russia

2. 추진 활동

1) 자연보전 활동



© Troy Mayne



© 한국코카-콜라



WWF는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연보전 활동을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담수 생태계 복원 및 습지 보전,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부, 기업, 단체 등과 협업하고 있다.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담수 생태계를 위해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2017년부터 김해와 창원 지역의 낙동강 유역권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물 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도랑 살리기 사업과 함께 앞으로의 관리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김해 주촌면의

옥계 저수지와 점골 저수지 준설 및 보수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더불어 물 순환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해마다 쌓여가는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를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B맑은 바다 적금과 신탁을 통해 쌓인 기부금을 통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한다. 가을까지 수거를 완료한 후 수거한 폐그물을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축구 골대, 쓰레기통, 의자 등으로 업사이클링 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2) 대중인식제고

WWF는 기업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소비자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점점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코카-콜라와 원더플(ONETHEPL) 캠페인, 산수음료와 클로징더루프(Closing the Loop)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바르게 수거되어 재활용이 된 플라스틱은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 캠페인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SSG 닷컴과는 일회용품 감축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 습관을 형

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저탄소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Lime과는 도시 모빌리티 개선 및 탄소 혁신 활동을 위해 '정글 라이드(Lime in the Wild)' 캠페인을 진행했다. P&G와는 북극곰 그리기 대회를 통해 기후 변화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자원의 소중함과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발자국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동화책을 발간하여 미래세대에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다 함께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음식, 패션, 플라스틱 등 다양한 주제로 기업과 함께하는 시민 인식제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3) 기업 임직원 환경 교육

WWF는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자연보전 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자연보전 활동에서 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비롯하여 각 산업 군별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설명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과 소비자 요구의 변화 그리고 선도적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환경 부문 주제를 포함하여 WWF가 기업과 협력하는 방법,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물 보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다. 또한, 영원무역 임직원 교육, P&G 지속가능성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파트너사 임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자연보전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모든 개인이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문제로 기업의 경영진 뿐 아니라 개인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실천과 노력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다. WWF-Korea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늘려갈 예정이다.



4)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과 시장 변화

WWF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을 돕고 기업 공동의 행동을 통해 환경적 영향이 큰 산업 부문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기업이 자연의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시스템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협업 성공 사례를 국내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텍스타일(Textile)

섬유패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류 폐기 원단을 재활용하여 패션산업에서의 재활용 및 새활용,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는 패션시장 변화 프로젝트 Re:Textile(리텍스타일)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2개의 브랜드가 2,322야드의 원단을 재사용했으며, 새 원단을 사용했을 때보다 48,854 kg의 탄소배출량(CO2e)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WWF-Korea 홍보대사인 배우 박서준을 비롯해 배우나, 오지호가 캠페인 영상 제작에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캠페인 영상은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지속가능한 소비와 패션이라는 주제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이 외에도 1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한 '지속가능한 패션 라운드테이블: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 기업의 책임과 역할'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SBT를 통한 탄소중립 로드맵, WWF 텍스타일 프로그램과 기업 사례 등 한국 섬유패션 기업들이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나아가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플라스틱

WWF는 'No Plastic in Nature 2030' 전략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환경 유입을 막아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의 일환으로 WWF-Korea는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전 주기별 모범적인 플라스틱 감축 또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환경부 자원순환과를 비롯하여 화장품, 식음료, 유통, 배달서비스,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8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정부·시민사회 3자 간의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날 진행된 'Plastic ACTion(PACT)' 기업 공동 선언을 통해 국내 6개 기업(매일유업, 밀레니엄 힐튼 서울, 산수음료, 아모레퍼시픽, 올가니카, 우아한형제들)이 각 사의 플라스틱 감축 의지와 비전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감축 목표 설정과 결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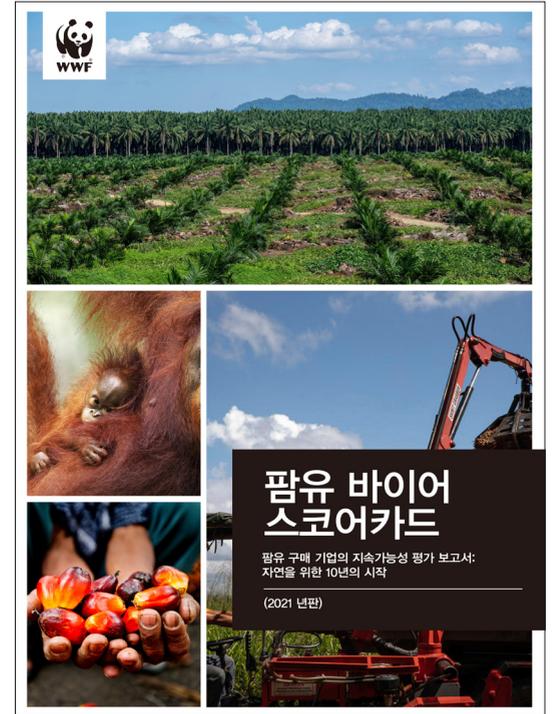


팜유

팜유의 주요 재배지인 아시아 지역 열대우림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팜유 소비 전환은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팜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팜유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전환,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팜유 사용의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팜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 광범위한 열대우림 손실이 발생했다.



© Aaron Gekoski / WWF-US

WWF 글로벌 하이라이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순간

© @gregdutoit

희망의 순간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는 WWF는 올 한 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그 어느때보다 자연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어스아워'를 비롯해, 자연위기의 신호를 연구한 '지구생명보고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이니셔티브, 소비자로서의 힘을 보여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자연보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WWF의 순간을 정리했다.

'변화를 향한 여정' WWF의 60년

1961년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모인 소수의 전문가 모임에서 시작된 WWF는 설립 초기에는 생물종 및 지역 보전 활동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자연보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방안으로 접근을 확대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현재는 자연 파괴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시장을 변화시키며, 자연자원의 지배구조 개선 및 녹색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야생동물, 산림, 해양, 담수, 식량,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WWF는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지구생명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생물다양성 증감 추이를 관찰 분석하고, SBTi를 통해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WWF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어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세계 최초의 식물 및 소비자 제품 에코라벨을 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비즈니스 전환을 이끌고 있다. 또한, 습지, 야생동물 거래, 생물다양성, 기후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협정을 채택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WWF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60년 동안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겪어왔고, WWF도 마찬가지였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이다.



어스아워 2021

지난 3월 28일, '지구를 위한 한 시간, 나를 위한 한 시간' WWF 홍보대사 배우 박서준의 울림 있는 목소리에 26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응답했다.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8시 30분, 1시간 동안 소등하는 '어스아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어스아워의 상징 '시간 소등'에는 서울N타워, 국회의사당,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전국 70여 개 랜드마크가 참여했으며,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도 어스아워에 동참했다. 세계적으로는 약 190여 개 국가에서 참여했으며, 온라인에서는 어스아워 해시태그가 약 96억 건 노출을 기록했다.

'시간 소등'의 특별한 릴레이라이브 방송도 진행됐다. 방송인 안현모의 사회로 각각 WWF-Korea 이사과 홍보대사로 있는 홍정욱 올라니카 회장, 방송인 타일러 리쉬와 아티스트 김충재, 베스트셀러 작가 정세랑이 출연해 자신만의 환경 이야기를 전했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릴레이방송을 시청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어스아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관련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어스아워 캠페인 영상에는 WWF-Korea 홍보대사 배우 박서준을 비롯해 뮤지컬 <위키드> 팀 등이 출연해 시민들의 어스아워 참여를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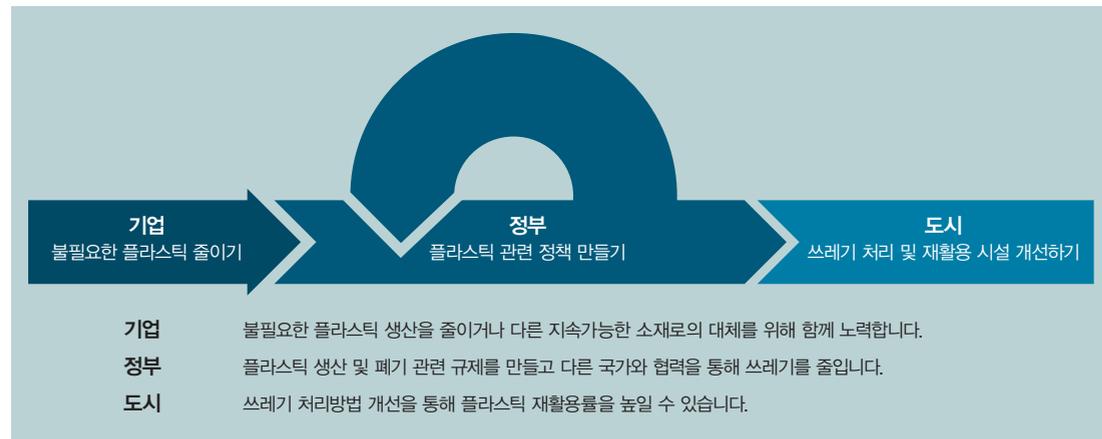
공동의 목표

WWF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WWF-Korea 역시 글로벌 목표와 발맞춰 국내 상황에 맞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지구적 변화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WWF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한다.

No Plastic in Nature by 2030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WWF는 2030년까지 자연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차단을 목표로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생산·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변화를 유도하는 'No Plastic in Nature by 2030'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No Plastic in Nature'는 3가지 측면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전체 과정에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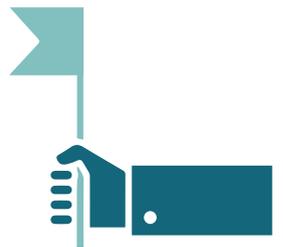
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대체 원료를 개발해야 하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결정과 플라스틱 제품 회수율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산업 구조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WWF는 각국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양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유엔 차원의 국제 조약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New Deal for Nature and People

'New Deal for Nature and People' 이니셔티브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고자 하며, 생산과 소비로 인한 부정적인 생태학적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서식지 파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90억 명의 전 세계 인구를 위한 식량과 물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기후 유지 및 야생동물의 멸종 방지를 이루고자 한다.

WWF는 각국 정부에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강화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에 따른 민간 부문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해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끄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세상(NATURE-POSITIVE WORLD)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된 목소리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일은 세계 시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하다. WWF는 자연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WWF가 주력한 캠페인을 소개한다.

지구를 위한 식습관 캠페인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자연 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식량 생산'이다.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며, 전 세계 온실가스 약 3분의 1이 배출된다. 우리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시스템적 전환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WWF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구를 위한 식습관(Planet-Based Diet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작은 변화는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음과 동시에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변화된 식습관은 훼손된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축산을 위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산림,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으며, 식품 생산에 쓰이는 물 사용량과 오염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과 식량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지구를 위한 실천 팁

- 1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 선택하기
- 2 육류 소비를 줄이고 식물성 식사 늘이기
- 3 가공식품 소비를 줄이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 섭취하기
- 4 필요 이상의 음식 섭취를 줄이고 다양한 식품 골고루 먹기

호랑이 개체 수 두 배 늘리기(TX2) 캠페인

호랑이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야생 호랑이의 약 97%가 사라졌다. 과거 10만 마리에서 2010년 3,200마리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1920년대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WWF는 지난 2010년 아시아 지역 13개 국가에서 호랑이 멸종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았다. 호랑이의 해가 되는 2022년까지 야생 호랑이 개체 수 두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Tiger X Two(TX2)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TX2 캠페인은 호랑이 밀렵, 불법거래의 종식,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지역사회의 생계 및 안전 보장, 보전 관련 법 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3,900여 마리까지 호랑이 개체 수가 증가했다.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열리는 글로벌 호랑이 정상회의(Global Tiger Summit)에서 보다 강화된 보전 노력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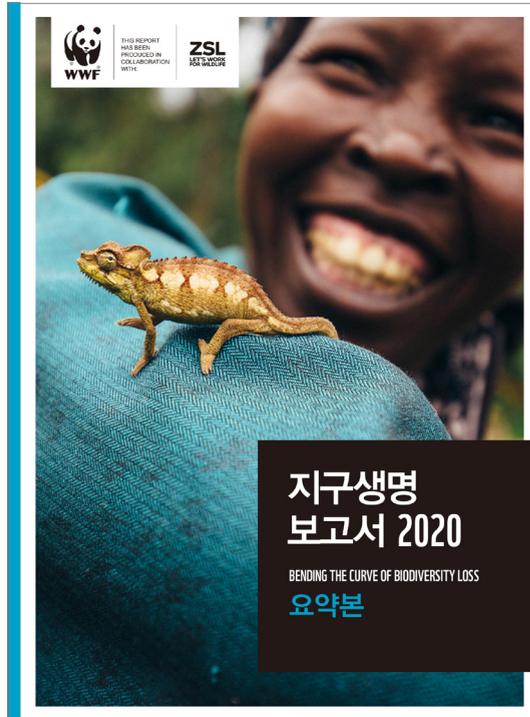
경고의 신호

지구생명보고서

WWF는 런던동물학회(ZSL: Zoological Society of London)와 함께 1970년대 이래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2년 마다 WWF의 대표 간행물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3번째 지구생명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지구의 생물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 2020은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척추동물 4,000여 종, 약 21,000여 개의 개체군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 등 척추동물 개체군의 크기가 평균 68% 정도 감소했다. 특히, 육상 생물종의 개체군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된 멸종위기종으로는 동부 저지대 고릴라(Eastern lowland gorilla)와 회색 앵무(African grey parrot) 등이 있다. 아프리카 콩고의 동부저지대고릴라는 대부분 밀렵으로 인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개체군 규모가 8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나 남서부 지역에 서식하는 회색앵무의 개체군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약 99% 감소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식량 생산방식으로 인한 산림파괴 등의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거래를 위한 사냥 위협 등이 꼽혔다. WWF는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보다 과감한 보전 노력과 식량 생산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식량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제고, 폐기물 발생 저감, 보다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식단으로



의 전환 등이 포함된다.

지구생명보고서는 자연 상태를 가능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WWF는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진단하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인류 건강과 생존을 지키고자 한다.



2021년 회계 보고

WWF-Korea의 2021년 회계연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자연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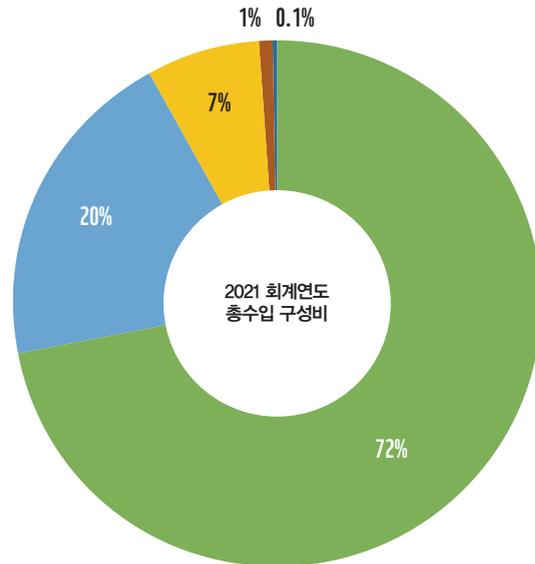
WWF-Korea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모금, 사업 운영, 후원금 관리의 과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 내용과 예산을 계획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에 수립 예산을 보고합니다. 예산 변경이나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후원금을 사용하며, 후원 목적에 적합한 후원금 사용을 위해 회계 시스템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정과 증빙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 및 지출, 결산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며 회계 전문가를 통해 정기 외부 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 실적, 수입, 지출 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결산 내역 등을 이사회와 WWF 국제본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현황

2021 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약 80억 8천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수입의 구성은 개인 후원금이 가장 큰 비중인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금의 비율은 20%, WWF 네트워크 지원금, 공공기관 지원금, 기타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8%입니다.



범례 (단위: 원)

개인후원자 후원금 5,853,803,720	공공기관 후원금 10,000,000
기업 후원금 1,600,448,489	
WWF-Network 574,710,801	
기타 수익 (이자수익포함) 40,151,970	

WWF-Korea 감사 시스템

외부감사	서우회계법인 연 1회 감사 진행
정부감사	환경부: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보고서 제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의무 공시 세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공익법인공시	국세청 웹사이트 공시 한국세계자연기금 웹사이트 공시

※ FY21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는 wwfkorea.or.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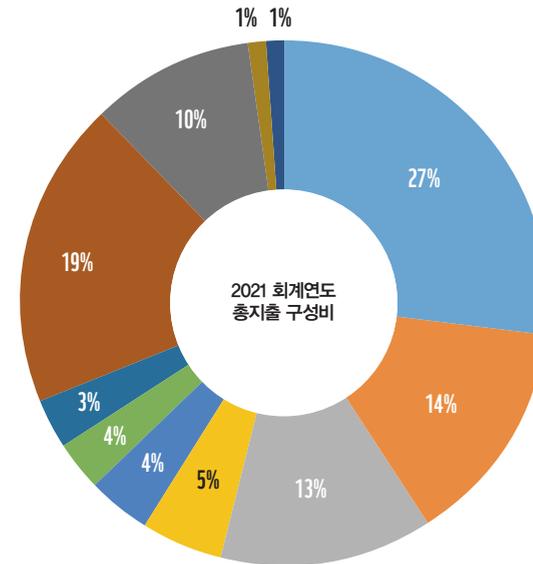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내부 감사
연 2회 이상 이사회 감사 진행

WWF-International 감사
회계연도 마감 후 연 1회 WWF 국제본부 감사 진행

지출 현황

2021 회계연도의 총 지출은 약 47억 9천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수치이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프로그램이 본 회계연도에 진행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총 지출 금액의 71%는 자연보전 활동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후원자 모집 및 관리에 19%, 그리고 10%는 운영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총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보전 활동은 플라스틱 프로그램, 기후변화 대응, 해양 보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WWF는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기관 및 지자체, 연근해 어민, 수산물 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종 보전 활동과 시민 인식제고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한 선도적인 활동과 다수의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업사이클링을 비롯하여 신재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전 주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범례 (단위: 원)

자연보전 인식제고 1,310,495,026	멸종위기종보전 프로그램 191,832,404	일반관리비 468,281,752
플라스틱 프로그램 666,727,760	담수보전 프로그램 143,396,192	여스아워 2021 60,177,583
해양보전 프로그램 611,391,283	텍스타일 프로그램 127,956,506	기타 비용 30,413,145
기후보전 프로그램 251,268,137	모금비 927,951,583	

WWF의 네트워크

WWF-Korea 이사회

이사장

손성환 (前 스웨덴 대사/기후변화 대사)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 울촌 대표 변호사)

박은실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조희경 (가온소사이어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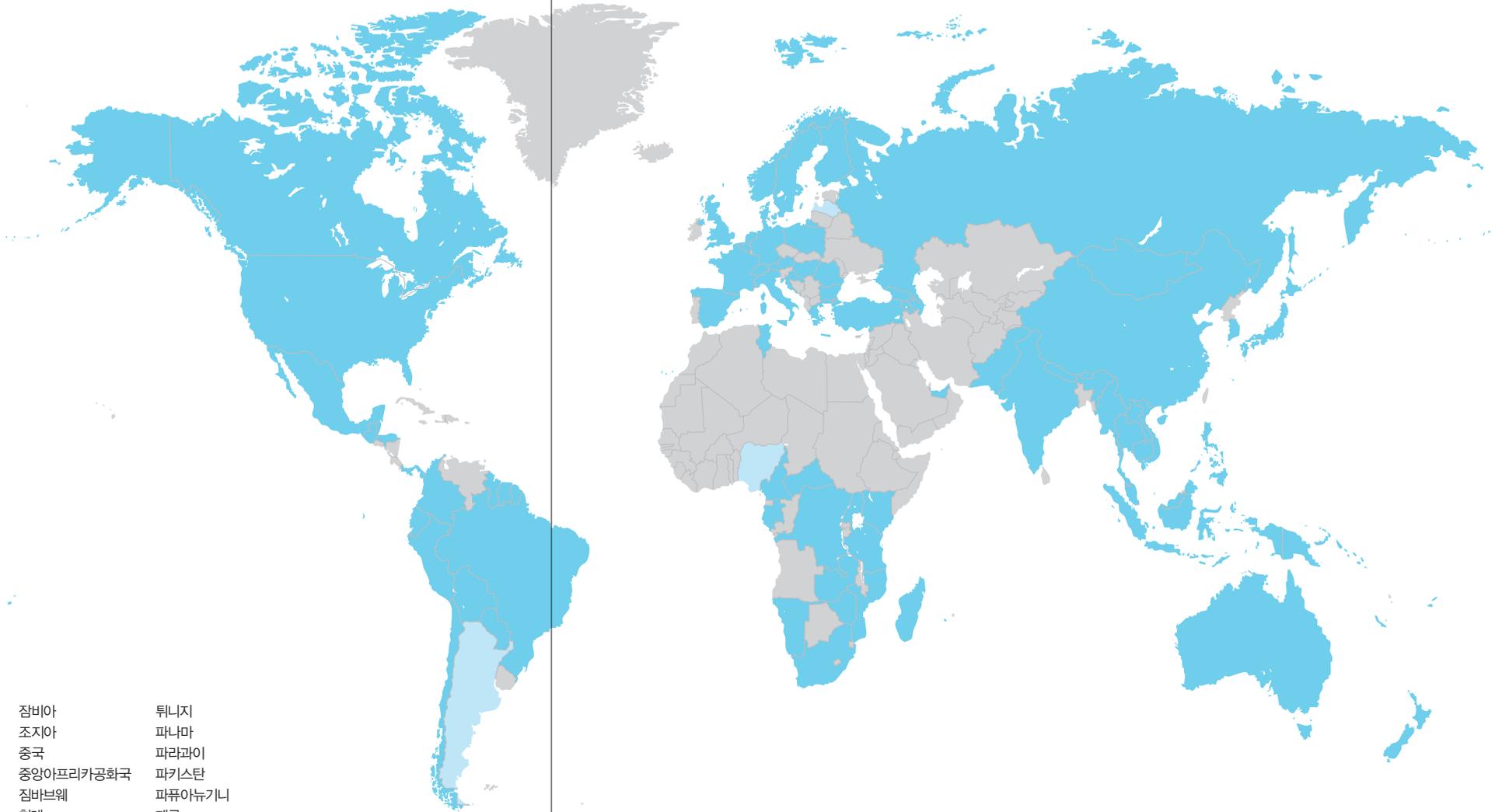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대표 사장)

감사

함중호 (딜로이트 인진회계법인 대표)



가봉	말레이시아	스위스	잠비아	튀니지
가이아나	멕시코	스페인	조지아	파나마
과테말라	모로코	슬로바키아	중국	파라과이
그리스	모잠비크	싱가포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나미비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
남아프리카	미국	아르메니아	칠레	페루
네덜란드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포르투갈
네팔	베트남	에콰도르	캄보디아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벨리즈	오스트리아	캐나	프랑스령기아나
대한민국	볼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피지
덴마크	부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핀란드
독일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필리핀
라오스	브라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러시아	솔로몬제도	인도	탄자니아	호주
루마니아	수리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마다가스카르	스웨덴	일본	터키	

WWF 제휴기관

-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 WWF Offices
■ WWF Associates

60 YEARS OF ACTION FOR NATURE AND PEOPLE



© Nitish Madan / WWF-International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1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